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창조성    제목: 창조적 영성    성경: 시126편

1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2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찻었도다 그 때에 못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 하셨다 하였도다

3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4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5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126:1-6)

창조적 영성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 창조성을 사람들에게 불어 넣으시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를 지었고, 세상은 오히려 죄인들을 덮치고 거역할 수 없는 대상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에 순응해서 사는 것이 인생이라 여기며 한평생을 자연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

어떤 몰지각한 사람들은 자연을 정복하라는 말을 오해해서 자연을 파괴하는 우를 범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자연을 다스리며 자연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혜택들을 긍정적으로 이용하려는 노력들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이처럼 인간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창조성이 필수적이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창조성을 잃어버린 채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짐승만도 못한 인생을 살기도 하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 아닌가?

다행히 예수 그리스도 이땅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온 인류의 죄를

없이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그로 인해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셨으니 이후로 인류는 창조적 영성을 회복하고 부흥과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비’라고 부른다. 성령의 비가 내리면 온 땅을 적시고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그러면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혜택을 나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지만 세밀하게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

모두가 비를 맞지만, 어떤 사람은 비를 예비한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비를 저장해서 나중에 활용한다. 어떤 사람은 방비하지 못해서 집이 무너진다.

누구에게나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는 창조적인 영성의 소유자가 되어 이땅에 임하는 부흥을 적극적으로 맞이하자!

창조적이 되려면,

1. 연합을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치라. 이제 창조성은 연합이다.
2. 개인적인 장벽을 물리치라 -마귀의 거짓말을 물리치라.(이것이 어렵고 시간 많이 걸림)

-가장 효과적인 것은 코칭이다. 코칭은 삶을 변화 시킨다.

-코칭을 통해서 창조적 영성을 회복하라!

그런데 핑계를 대면 코칭은 무산된다. 약속을 어기면 코칭은 무산된다. 댓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코칭은 유산된다. 건강한 짝이 없으면 코칭은 무산된다.

건강한 파트너와 건강한 대화를 나누라.

코칭은 결국 자기 속에 있는 마귀의 생각들을 물리치는 것이다.

예)

내가 오늘 교회에 가야 하겠다고 생각했다고 하자.

이 생각과 함께 약 10가지 정도의 생각이 튀어 올라왔다고 치자.

1. 기왕 갈바엔 선린교회에 가야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2. 그러나 곧이어 굳이 너무 일찍 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3. 내가 꼭 선린교회까지 가야만 할까 하는 생각도 든다...

즉 열가지 생각 중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도 있고, 마귀가 곁에서 속삭이는 말도 있다는 뜻이다.(당사자는 매우 헤깔린다.)

이때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코칭이 이를 도와 준다. 분별이 쉽지만은 않는데, 분명하게 선과 악을 구별하고,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도록 돕는 것이 코칭이다.

이때 칭찬이 매우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

비판은 코칭이 아니다. 차라리 행동 수정을 위한 권면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비판 속에서 행동 수정을 위한 지혜를 건지는 자는 훌륭한 코치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할 수 있다. 정말 절실하게 칭찬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러나 칭찬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칭찬중독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한다.(칭찬만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절반만 살고 절반은 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칭찬도 사실은 그것이 진실일 경우가 있고, 또는 그것이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일 경우가 있고, 단순히 긍정적인 표현이거나 선한의 도에서의 인사치레일 경우가 있다. (의도적이진 않지만 두 번째까지는 괜찮아도 세 번째부터는 인사치레 이상으로 해석하면 곤란하게 된다.)

그러나 칭찬으로 더 나은 행동수정을 얻을 수 없다면 더 분명하고 열정적인 자기개발에 돌입해야 한다.

비판보다는 칭찬이 건강한 것이지만, 세상에는 비판이 더 많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칭찬도 건강하지 않을 수 있고, 비판도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서 건강할 수도 있다.

칭찬이 햇빛이라면 비판은 이산화탄소와 같다.

건강한 사람은 칭찬과 비판을 다 받아들여서 이 둘을 합해서 양분도 만들고 산소도 만들어낸다.

비판이 듣는 순간에는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가 그 비판을 건강하게 받아들인다면 그는 비판에서 쓴 맛을 제거하고 마귀의 독을 제거한 다음 그 나머지를 권면으로 재해석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

마귀의 힘을 역이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코칭을 통해서 건강한 생각을 걸러내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자신에게 있는 창조적 영성이 드디어는 발현하게 된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 창조적 영성은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가능하다.

변화를 받아 긍정적이 된다. 새사람이 된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며 완성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전진할 뿐이다.

무너지면 다시 쌓고 좋은 생각이 나면 새롭게 쌓자.

호시절이 오겠지만, 가을이 오는 것이지, 다음에는 겨울이고 그 다음은 봄이다. 당신의 계절 감각을 잘 활용하라, 지금이 겨울인가? 수입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열심히 배우고 신기술을 받아 들이고 고장 난 곳을 고쳐야 한다. 왜냐면 곧 봄이 오기 때문이다. 겨울을 대비해서 추수때 비축했다라면 더 수월했을 것이다. 지금이 봄인가? 열심히 씨를 뿌리자. 지금이 여름인가? 땀흘려 일해야 한다. 지금 땀 흘리지 않고 겨울처럼 지내면 안된다.

지금이 가을인가? 열심히 추수하되 겨울을 대비해야 한다.

영적 계절은 자연의 사계와는 다르다.

겨울에 정비하지 아니하면 봄은 오지 아니하고, 봄에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여름은 오지 않고, 여름에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가을은 오지 아니하며, 가을에 추수하지 아니하면 추운 겨울이 곧 닥치게 된다. 가을에 열심히 추수하면 겨울이 빨리 지나간다. 이것이 영적인 계절의 원리다.

우리는 씨를 뿌릴 때 싹이 날 것을 믿고 기대하며 씨를 뿌린다.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할 때에 추수를 생각하며 틀림없이 열매를 맺히게 될 것을 기대하며 믿고 땀흘려 일한다.

우리는 추수할 때 겨울에 필요한 충분한 양식을 비축해서 겨울을 잘 나도록 준비한다.

그런데 어디선가 잘못되어서 울면서 씨를 뿌려야 할 때도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악화되고 앞날이 불확실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계시가 분명하니 우리는 고난 중에 씨를 뿌려야 한다. 아멘.

<찬양예배>

주제: 부흥      제목: 부흥을 준비하는 교회      말씀: 사도행전 2장 42-47절

42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3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46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행2:42-47)

부흥하는 교회에는 ---

열정적인 핵심 요원이 있다.

분명한 가치를 공유하는 리더들이 있다.

교회생활 전체가 긍정적이며, 능동적이며, 기쁨이 충만하며, 기능적이어야 한다. 모두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각자 위치에서 신나야 한다.

모두는 핵심적인 간증이 있어야 한다.

핵심 요원들은 한두가지 잘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핵심 요원들은 먼저 복을 받아야 한다.

42.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에 대해 연구를 잘 해야 한다. 반복학습을 통해서 잘 익혀야 한다. 내용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기초로 교제하며 기도해야 한다.

43. 두려움과 기적은 상관 관계가 있다.

-영적 리더의 리더십에 두려움으로 임하지 아니하면 자신에게 무익

하다. 기적이 임하지 아니한다.

-교역자가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면 부흥은 사라진다.

-교회가 교역자를 두려워하게 되면 기적이 두려워 하는 자에게 임한다.

44. 물건을 서로 통용함. 경제적인 이익을 말함. 기본적인 삶이 가능하게 된다. 자기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교인들을 돕는 것이다.

-빵 장사는 빵을 통용할 수 있다. 그는 기본적으로 망하지 않는다.

-신발 장사는 신발을 통용한다. 그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서로 돕기 때문이다.

45. 재산과 소유를 팔기도 한다. (그만큼 크게 여유롭다는 뜻이다. 팔고 가난해졌다는 뜻이 아니다.)몇사람은 경제적으로 크게 교회를 도와야 한다.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최소한 10명 정도는 크게 성공할 것이다.

46. 날마다 모였다. 항상 하나님의 일과 관련해서 일이 있었다는 뜻.

47. 드디어 부흥이 교회에 찾아오게 되었다.